

이타지키 망루

구시마 성 남쪽 성벽에 있는 나무로 된 2층 망루에서 성의 해자와 오무라 만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는 아마 이러한 ‘망루’가 6개 있었을 것입니다. 망루에 배치된 보병이 영토와 성에 물이 밀려오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망루는 안쪽 해자, 바깥쪽 해자와 함께 구시마 성 방위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망루는 바깥 성벽에 세워졌으며 돌을 떨어뜨리기 위한 숨겨진 구멍, 화살과 화승총을 쏘기 위한 길쭉한 구멍 등 방위적 특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돌 성벽은 당시 성곽 설계의 일인자로 여겨졌던 무장 가토 기요마사(1562~1611)가 고안해 낸 ‘오기노코바이(扇勾配, 부채 경사)’라는 구조로 폭이 넓은 토대 쪽을 향해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휘어진 성벽은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형성하고, 침입자가 성벽을 오르기 어렵게 했습니다.

1992년에 이타지키 망루가 세워졌는데, 이 망루는 17세기 성루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타지키 망루는 벚나무로 둘러싸여 있으며 봄이 되면 이 벚나무들이 꽃을 피웁니다. 또한, 이타지키 망루는 5월 하순이 되면 수천 송이의 꽃창포가 심겨 있는 안쪽 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와 꽃창포가 피는 시기에는 꽃과 함께 이타지키 망루를 물들이는 조명 연출도 즐길 수 있습니다.